
제5장 종족공동체의 형성

1.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 동맹의 출현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희망의 구체적 상징이다. 그들의 희망은 땅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착이야기가 중요한데 바로 그런 탓인지 여러 갈래로 보도되어 이해하기가 꽤나 어렵다. 여호수아 12장까지 보면 저들은 군사적 저돌력으로 승승장구하여 가나안을 정복해버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런 인상은 여호수아 11장 끝절이 “이로써 전국에서 전란이 멎었다”고 하며,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정복한 땅들과 종족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 우선 늙은 여호수아에게 ‘점령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고 그 이름들을 든다. 그 땅들을 점령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변, 즉 산악지대 정도를 점유했을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은 판관기에 이르면 더욱 확실해진다. 판관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야훼의 명을 어겨 그들을 ‘잡는 그물’이 되고 ‘웁아매는 울무’가 될 이 민족을 ‘너희들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리라’(3~4)고 하는가 하면 3장에는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빠짐없이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종족

과 공존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그 종족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3, 1~6). 이로써 가나안을 군사적으로 단숨에 정복했으리라는 추측은 무너지고 다음 같은 여러 가설이 무성하게 되었다.

첫째, 에집트에서 온 히브리가 군사적으로 일거에 가나안을 정복했다(올부라이트 등).

둘째,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잠입 정착하되 군주국들이 평지를 점유한 데 대해 산악지대를 점유하였다(알트). ; 이주가설

셋째, 에집트에서 들어온 히브리와 가나안 안의 군주 밑의 농노인 히브리가 결탁 봉기하여 점령한 지역에서 종족동맹을 만들었다(멘델슨). *가나안: 계급적 결속 ; 혁명가설

판관기 6장 7~10절을 보면 셋째 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는 분명 다른 두 히브리가 공존한 것이 드러나며 또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종족 일반과 싸운 것이 아니고 군주들과 싸운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스라엘 종족동맹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B.C. 1220년경에 비로소 등장한다(침멀리). 그런데 약 200년을 지켜온 이 시대에 대해서는 신명기 사가들의 손에 의해서 편집된 문서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가나안 정착시기와 관련시킨 것으로는 여호수아기와 판관기가 그 자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종족동맹의 중심은 농민들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끝자에 해당하는 엘신(EL 神)과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야훼가 구원한다'라는 뜻에서 보는 대로 야훼신의 이름이 한동안 함